



고장경찰서, 고장북중서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교육

고장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8일 고장북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해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특별예방교육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 10대 청소년들의 불법게임·스포츠 토토 등 성인 도박 사이트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실태에 대해 알리고,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강의를 진행했다.

여성청소년계는 5월까지 관내 초·중·고 주요 학교에 대해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도박관련 특별예방교육을 지속 전개해 선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학교 폭력 발생 및 청소년 미약·도박에 대해 힘들어 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 할 시, 117·112로 신고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한도연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 및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김영식 기자



장수경찰서, 장계중서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교육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최근 장계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해 설명하며 단순 게임 정도로 치부되던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로 우연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기 범죄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장수경찰서는 향후 도박 종목 청소년 발견 시 전문기관의 체계적 교육·상담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재범 위험성을 없애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 활동에도 적극 전개해 나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훈 서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도박에 대해 단속·수사 뿐 아니라 특별 예방 교육을 통하여 홍보와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상전면 금당마을, 봄맞이 대청소 펼쳐

진안군 상전면 금당마을은 9일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 20여명이 함께 봄맞이 마을 대청소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한 대청소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 용답호와 금당마을 주변에서 겨우내 쌓았던 담배꽁초, 병, 캔 등 무단투기 된 각종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

또한 트럭을 동원해 전봇대와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상전면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졸업생 김준이 박사 ‘보산핵물리학상’

한국물리학회서 핵물리학 연구업적 탁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펠로우로 활동

전북대학교 졸업생인 김준이 박사(2011학번·사진)가 한국물리학회가 수여하는 2024년 봄 한국물리학회상 ‘보산핵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전북대를 졸업하고, 사범대 과학교육학과에서 김은주 교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물리학회 보산핵물리학상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거나 우수한 학위논문을 접두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해 앞으로 한국 핵물리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9번째다.

이에 따르면 김 박사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에 위치한 거대강입자충돌기(LHC, Large Hadron Collider)의 ALICE 실험에서 상대론적 중이온 충돌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전입자의 흐름과 가벼운 공명입자 구조, 관련 모델 연구 등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

특히 f0(980) 입자의 내부구조 이해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다각도로 수행하고 있다. 젊은 연구 경력에도 불구하고 『International Nuclear Physics Conference』, 『Strangeness in Quark Matter』, 『Hard Probes』, 『Initial Stag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Energy Physics』와 같은 저명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했고, 또 다수의 제1저자 논문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에서 직접 선발하는 ‘CERN fellowship’ 수상자로 선정됐고, 올 4월 1일부터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에서 펠로우(Fellow)로서 핵물리학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김준이 박사는 “전북대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한 자랑스런 전대인으로, 앞으로도 계속 상대론적 중이온 충돌로부터 생성되는 가벼운 워크, 무거운 워크, 그리고 생성된 워크와 매질 혹은 워크들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여 워크-글루온 플라즈마의 생성 메커니즘 및 전개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영농폐기물 합동 수거 나서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농신보남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은 최근 고방주 부모임(회장 이인순), 농기주부모임(회장 박선임)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방치된 폐 영농자재 및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폐비닐 수거를 통해 농촌환경 회복과 산불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오영석 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로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화기와 화재 사설을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사적인 공간인 만큼 소방서의 소방시설 설치 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설정이며, 특히 고령 주민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이나 설치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회제에 취약하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법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기관장협의회, 스마트팜 농가 농촌일손돕기 봉사 펼쳐

정읍시기관장협의회(회장 정경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9일 정읍시 북면 소재 이음 스마트팜 농장을 찾아 완숙토마토 수확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학수 시장, 고경운 시의회의장, 임경수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원장, 이용갑 국립전북기상과학관장, 이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윤지호 내장산생태탐방원장, 윤경만 정읍역장, 이영하 칠보수려발전소장, 윤명수 내장산국립공원 소장, 배석훈 KT 지점장, 이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김정화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박희일 한국수자원공사 지사장, 설illo 한국전력공사 지사장, 정용호 정읍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이재연 농협 시지부장을 비롯한 정읍시기관장협의회 회원 및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임직원 등 30명이 참여하여 완숙토마토 수확 등 일손돕기를 가졌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 앞서서는 스마트팜 농업의 현황과 미래농업의 방향에 대해 정읍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며, 스마트팜농장 대표로부터 농장소개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임경수 정우회 회장은 “정읍시기관장협의회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간비상승과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스마트팜농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간비상승과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스마트팜농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따뜻한 봄철이 다가오며 산악사고 저감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지역 구조출동 건수는 664건으로 전년 738건 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간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증가세로 나타났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산악사고 안전시설 정비 및 보강 △위험지역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산악구조 대응능력 향상 산악훈련 실시 △첨단구조장비 활용 신속대응체계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행 전 기상 및 등산 경로 확인 △산행 시 사전 준비운동 실시 △무리하지 않는 산행 계획 수립 △산악 위치 표지판·119구조장비 위치 확인 및 사고 발생 시 표지판 활용 신고하기 △비 등으로 인한 기온·체온 강하 대비 보온장비 준비 △등산로 이탈 금지 등 안전수칙들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